

# 언론 사람

**01**  
2020  
VOL.235



**04** 인터뷰 人+人  
정끝별 시인

**08** 세상사는 法  
최근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10** Newmedia of the World  
다양성 알고리즘

**12** 이달의 시  
물처럼, 강물처럼 하나 되어  
흘러가는 시간

- 03 **신년사**
- 04 **인터뷰 人+人**  
정끝별 시인
- 06 **손거울**  
토론이 흘러넘치는 뉴스룸을 꿈꾸며
- 08 **세상사는 法**  
최근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 10 **Newmedia of the World**  
다양성 알고리즘
- 12 **이달의 시**  
물처럼, 강물처럼 하나 되어 흘러가는 시간

- 14 **단어의 중력**  
오르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진실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 20 **클로즈업**  
통영 한산섬의 일출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lamkaoo99  
<Sky blue and orange light of the sun>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년사

희망과 설렘으로  
새해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달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과 다짐이 많은 달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열정과 성심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500여 건의 언론분쟁 조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인격권 등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국적, 지역, 종교,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을 유발하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차별·혐오 표현, 허위조작정보 등 언론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를 활성화하고 높이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관한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의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집니다. 또다시 불공정보도와 허위조작정보가 기승을 부려 올바른 국민 여론과 판단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정절차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절차를 통해 불공정 허위조작 보도를 시정·예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관한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도입과 중재부 증설 등 언론중재법상 현안 해결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제도는 물론 개별적 사건처리절차에서도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국민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 이전에 협상과 화해,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과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언론분쟁을 특별법에 설치된 조정·중재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새해 건승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석형

## 인터뷰 人+人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리듬과 이미지가 충만한 시정(詩情)으로 독특한 시 세계를 보여주며,  
시가 사회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운 우리 삶의 토대가 되길 바라는 이가 있다.  
뛰어난 언어감각으로 말의 변주를 통해 시의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시인 정끝별.  
새해를 맞아 특유의 유머와 감성으로 삶과 인생을 표현하는  
애너그램의 장인 정끝별 시인을 <언론사람>이 만나보았다.

#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정끝별 시인

### Q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작자에게 한 해의 시작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어렸을 때 손뼉을 부딪치며 놀았던 '씨세세'라는 놀이가 있잖아요? 제가 그 놀이를 생각하며 '세세세'라는 시를 썼는데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 저 기러기가 놓친 엽서 한 장이라면 / (중략) / 너랑 나랑은 그렇게 빨리 / 서로에게 털린 두 손을 백기처럼 내밀고 / 그래도, 다시, 세세세(歲歲歲)!”

새해가 되면 '씨세세' 놀이가 떠올라요. 노래에 나오는 '엽서 한 장'이 저에게는 시이고, 사랑이고, 희망이자 소식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손뼉을 치고 노래하며 다시 새 엽서를 쓰기 시작하는 게 새해 아닐까요?

### Q 작년에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셨는데요. 어떤 시집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두 번째 시집, <흰 책> 서문에 '세상 모든 농과 세상 모든 되풀이를 위하여'라고 쓴 적이 있어요. 상처로서의 화농을 농담으로, 답습으

로서의 되풀이를 리듬의 되풀이로 넘어서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이번 시집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삶의 근원으로서의 화농과 되풀이가 여성, 가족, 자본, 경쟁, 폭력 등이라면, 농담과 리듬이 라임과 애너그램으로 극대화되었다고나 할까요? 일상과 시대와 삶에 대한 진술에 이야기를 입히고, 우리말의 최대치를 리듬으로 확장시켜 듣는 재미가 있는 시로 구현하고 싶었어요.

애너그램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일종의 철자 바꾸기예요. 지금껏 저는 우리말에는 이중자음이나 복모음이 있어서 애너그램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었는데 우리말에서도 애너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은 즐거운 발견이었어요. 애너그램이 가능한 시어들만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지은거죠. 기존의 시각이나 언어와는 다른 시점과 감각이 나왔어요. '시급'이라는 단어에서 '급스'라는 의미를 읽어내는 방식이죠. 두 단어가 음소가 동일하니 소리가 유사하고,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다른 의미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낯선 조합의 발견이 즐거웠습니다.

### Q 우리나라에서 젠더 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시집에도 '젠더의 새벽은 아직 출다'라는 꼭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전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여성시인, 여성평론가, 여성연구자, 여성교수로 살아오면서 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건들과 싸워야 하는 타자화된 주체였어요. 지독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희망대로 여대를 나왔어요. 헌데 아버지 기대와는 반대로 그 여대는 1980년대 여성운동의 메카였죠. 딸이었던 20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젠더화된 여성성을 학습당했고, 여성 주부와 직장인으로서 지금껏 젠더화된 여성성을 거부하고 또 견뎌냈는데, 20대 두 딸을 둔 엄마로서의 지금은 젊은 딸들이 요구하는 '젠더 감수성'에서는 그 한계가 느껴져요. 좀 복잡하고 착잡한데, '젠더 세대차'를 적게 하려고 노력 중이죠.

큰 흐름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더 나아가야 한





## 한 걸음 더

낙타를 무릎 꿇게 하는 마지막 한 짐  
거목을 쓰러뜨리는 마지막 한 도끼  
사랑을 식게 하는 마지막 한 눈빛  
허구한 목숨을 거둬가는 마지막 한 숨  
끝내 안 보일 때까지 본 일 또 보고  
끝을 볼 때까지 한 일 또 하고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물리니까 한 걸음 더  
땀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줄의 금  
장군을 부르는 마지막 한 수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  
이야기를 끝내는 마지막 한 문장  
알았다면 다시 할 수 없는 일  
알았다 해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일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모르니까 한 걸음 더

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자보다 두 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딸을 오히려 더 강하게 키우려 했던 거 같아요. 만인의 평등, 만물의 상생, 만유의 자유, 이런 유투피아는 시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치들이죠. 불가능의 가능성이야말로 시가 꿈꾸는 가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 평등, 다양한 성의 상생, 성의 자유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꿈꾸어야 할 지향점이고, '여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온갖 강요와 불의와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디지털 미디어 발달의 부작용으로 언어의 혼탁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인으로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부작용', '혼탁'이라는 말에는 특정한 기준이나 가치가 옳다는 판단이 내재된 말들이지요. 그러나 시를 쓰는 저로서는 시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고, 시야말로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하다고 믿는 터라 그런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

습니다. 그건 마치 오른팔을 높이 치켜들고 우향우, 우향우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왼쪽도 되고 옆도 되고 앞뒤도 되는 건데 말이죠. 시라는 것은 생물처럼 살아 있는 것이고, 시적인 것 또한 아메바처럼 무정형적인 것이라고 믿기에, 시어의 형태와 작용이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동시대의 언어란 그 시대에 맞게 수많은 언중(言衆)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언어에 민감한 저는 그것이 은어든 비어든, 급식체든 줄임말이든, 인싸 용어든, 인터넷 신조어든, 이모티콘이든, 초성이든 늘 새로운 언어들 찾아가며 익히는 편이죠. 저는 그런 언어들 재미있어요. 언어에는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과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도 생물과 같아 생과 멸을, 흥과 쇠를 겪습니다. 힘센 언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언어들 살아남는 거죠. 어차피 하찮고 의미 없는 언어들 대부분은 언중과 시대의 부정작용에 의해 걸러져요. 시가 변하듯 말이죠. 100년 전에는 지금의 시들을 미처 상상하지 못

했을 거예요. 시간과 다수의 선한 의지를, 그리고 그들에 의한 자정작용을 전 믿는 편입니다.

**Q 언론사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적인 사유와 시적인 상상력, 시적인 언어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사랑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경자(庚子)와 함께 하는 새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에 한 걸음'을 더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 걸음에 한 걸음을 더했다는 의미는, 그만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조금씩 나아갔다는 의미일 겁니다. 앞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딘가에 이를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만 걸음이 되고 만 걸음, 만 걸음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겠지만, 오늘도 한 걸음 더! 그런 마음으로 저서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에 실린 시 「한 걸음 더」를 전합니다.

# 토론이 흘러넘치는 뉴스룸을 꿈꾸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류의 생활을 바꾼 실리콘밸리.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의 비결과 정책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방송기자연합회는 2년 연속 미국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사에 참여했지만, 엄청난 호텔 숙박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미국 젊은이들이 만들었다는 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 Y 씨는 색다른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집주인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를 착각해서 약 2만 달러를 손해 본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좌절하며 시말서(Postmortem)를 작성했다고 Y 씨는 당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포스트(Post)는 '후', 모템(Mortem)은 '죽음'이니, 포스트모템은 부검을 뜻하기도 합니다. Y 씨는 마치 법의관이 부검하듯 시간대별로 환율 피해 상황을 정리한 뒤, 파악한 원인과 방지대책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모템 시스템에 글을 업로드하자, 시말서가 에어비앤비 모든 사원에게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비공개일 줄 알았던 시말서가 회사 전체에 공개되자 매우 당황

토론

평등

소통  
문화

회의

팩트  
기반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번 사건을 잘 분석한 덕분에 내가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한 분석이 놀라워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늘 있었거든요’ 등의 댓글과 ‘좋아요’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승진평가에서 이 시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Y 씨는 말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인재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블레임리스 토크(Blameless Talking)’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중요한 기업문화라는 설명입니다.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문화가 실수와 관련된 정보마저 공유하는 문화로 이어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임원들만 고급정보를 독점하지 않는 투명한 정보 공유 문화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수평적 소통문화는 한국의 일부 IT기업에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으로 불립니다. 모든 구성원이 영어 이름을 따로 갖고 있고, ‘님’이나 ‘께서’ 같은 존칭 없이 이름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을 연상시키는 존칭어를 빼고 평등하게 소통해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지시를 내린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역인 스탠퍼드 대학에 한국인 학장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의 신기욱 교수입니다. 신 교수는 저서 <슈퍼피셜 코리아>에서 한국기업의 획일적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시가총액 톱 10인 두 기업에서 강의하는데, 모두 짙은 색 양복을 입은 50대 한국 남성 임원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에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믿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여성이 없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지 않은 대기업 이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신 교수는 ‘그룹 구성원의 다양성은 인지능력의 다양성으로 이어져, 문제해결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미시간대 스콧 페이지 교수의 저서 <다름(The Difference)>을 인용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기본으로, 기업과 대학은 다양성 책임자(Diversity Officer)를 두고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양성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국의 뉴스룸 문화를 바

라보면 어떨까요? 뉴스룸에는 문과 출신의 3, 40대가 대부분입니다. 20대는 거의 없고,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한 기자도 매우 드뭅니다. 또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온 동포 출신 저널리스트가 없는 언론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 동안 수평적이고 건강한 토론문화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언론인이 해직됐고, 수백 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거나 일자리에 쫓겨났습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탐사보도 아이템은 채택되지 않았고, 뜻을 굽히지 않은 기자는 인사이동을 당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성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저널리스트들의 토론은 패거리 흑색선전과 시선 맞춤(Eye Contact)을 거부하는 반인권적 행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황은 나아졌으나,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뉴스룸을 꿈꿔 봅니다. 권위적 소통문화는 사라져야 하고, 공정언론 투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토론을 미리 짜 맞추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상징되는 뉴스룸 내의 패거리 문화도 없어야 합니다. 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동료로 왕따시키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시를 내리는 선배에 대한 상향평가와 동료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기자회견과 노동조합이 중심을 잡고, 사내 민주주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십여 년 전 MBC 뉴스룸에서의 상큼한 첫 경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임 보도국장 정책 발표회’라는 타이틀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메인뉴스가 끝난 늦은 시간임에도, 새 보도국장의 뉴스철학과 추진과제에 대해 후배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은 예민했고, 어떤 질문은 매우 과감했습니다. 신임 보도국장은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EO와 직원들이 큰 식당에 모여 격의 없이 토론하는 실리콘밸리의 타운미팅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잊었던 뉴스룸의 타운미팅 문화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뉴스의 중립성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부서마다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한국에도 영국 가디언이나 미국의 사이언스처럼 편집회의 내용을 바로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회의실에 외부인사를 배석시키는 뉴스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 세상사는 법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최근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최근 SBS-TV의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해서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동일 방송에 대해 이미 작년 8월에 방송금지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론은 이 결정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방송금지가처분은 보도 이전에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되어버리고 나면 보도 대상자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구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가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는데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조건인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와 교환'을 미리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보도금지가처분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폭은 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되, 공개된 생각들이 지지와 반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흥망성쇠하도록 두는 것이 옳바르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들어가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표현을 통제하는 검열을 금지한다(헌법 제21조).

그렇다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은 검열과 다른가(검열에 해당하면 애초에 금지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은 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1999년 MBC-TV <PD수첩>이 OO목사와 여자 신도들 사이의 성추문과 도박 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해당 교회 측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목사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방송하지 말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방영금지가처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열이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별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결정).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 검열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법원은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전처분을 예외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05. 1. 17. 2003마1477 판결).

법원은 사전처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입장이므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특정 부분을 빼고 방송하라'와 같은) 일부 인용만으로 인격권 침해를 피할 수 있으면 일부 인용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방영금지가처분이 처음으로 전부 인용되었던 케이스는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버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 등을 다루려 했던 방송에 대해, 법원이 '교주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정 등을 근거로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사건이다(서울지법 2001. 7. 28. 2001카합1627 판결).

살인 혐의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또 있다. 200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간첩으로 알려져 있던 수지 김이 사실은 간첩이 아니고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될 예정이었다. 이에 남편은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간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수지 김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허가하되, 남편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 부분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공공성 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허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2. 11. 2000카합291 판결).<sup>1)</sup>

즉 과거의 판례와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이번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은 같은 판단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은 정식의 법적 판단 없이 일반 사인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쟁점은 '개인의 유·무죄를 과연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의와도 닿아 있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주장을 하고, 양측의 공방을 경청한 판사가 마지막에 판단을 내린다. 물론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러한 수고로움 없이 곧바로 진실을 알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필요성에서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무죄로 판단된 사람에 대하여 언론이 유죄라는 심증의 보도를 일방적으로 전파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는 언론사가 방향성을 갖고 취재한 사실들을 기초로 편집된 것이어서, 보도 당사자의 방어 및 변론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성격의 보도를 통해 이미 재판받은 특정 사인에 대해 유죄라는 강한 심증과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 것이 정당할까.

물론 나도 김성재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해서, 언제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다. 이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1) 여담으로 수지 김 남편은 이후에 살해 의혹이 진실로 밝혀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제야 SBS-TV는 '수지 김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편을 방송할 수 있었다.

# 다양성 알고리즘

필터버블은 보통명사가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름막들로 뒤덮여 있기에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거쳐 아침마다 접하는 뉴스와 콘텐츠들은 알고리즘의 거름막을 한 번쯤 거친 것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리를 조정한다. 우리의 인적 물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교감의 대상들을 결정한다. 알고리즘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우리의 편견을, 그리고 편향을 키울 것이라는 공포에 기인한다.



뉴스라는 콘텐츠의 한 지류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유튜브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이 인지 편향을 강화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플랫폼들도 그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증적 연구 등을 봐도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인지 편향의 효과는 사실에 가깝다. 뉴스 소비자들의 관심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신호를 알고리즘이 수용하고 배유면서 '좌'에겐 '좌'만, '우'에겐 '우'만 추천하는 극단적 현상들이 지금도 목격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 우리가 보고 소비하는 뉴스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통칭하는 용어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유사성, 사용자와 콘텐츠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변수를 분석하고 익힌다. 당연히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비슷한 뉴스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알고리즘 설계 목적에 부합한다. '적중 확률'도 높아진다.

왜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할까? 인지 편향을 강화하는 그들이 분명한데도 왜 바꾸지 않을까? 무척이나 당연한 질문이면서 수용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 이면에 수익이 존재하고, 플랫폼 사용의 활성도가 놓여 있어서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향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공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라고 강제한다면, 반아들일 리 만무하다. 네이버를 향해 저널리즘 가치가 높은 뉴스를 우선 노출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면, 귀에 담을 리 만무하다. 알고리즘 변경은 그래서 간단치 않은 문제다.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수익과 공공적 이익을 결합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네덜란드 연구자들의 공동 프로젝트는 그래서 눈길을 끈다. 이들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뉴스 알고리즘 재고: 네티즌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뉴스를 노출하기'다. 뉴스의 다양성을 지켜냄으로써 사회의 극단화 현상과 필터버블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유튜브도 네이버도 시도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알고리즘을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흥미로운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들이 연구 개요에서 밝히고 있듯, 4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 첫째는 다양성에 대한 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컴퓨터 과학자나 수학자가 '다양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본질적이고 역사

적이며 문화적인 이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설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만약 사기업에게 '다양성'의 정의를 내맡긴다고 생각해보라. 노출되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다양성으로 정의할 확률이 높다. 그것의 정의를 위해 요구되는 역사적 맥락,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난해하고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 정의된 다음에는 수많은 뉴스의 묶음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분류해낼 수 있어야 한다. 뉴스에 담긴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성의 조합으로 재구성하려면 자연어처리 기술의 핵심이랄 수 있는 언어모델을 설계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공급 모델이라면, 소비 모델의 알고리즘도 구상해야 한다. 어떤 뉴스의 조합을 추천했을 때 다양성이 사용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지 관계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뉴스 추천 서비스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굳이 이런 시시콜콜한 추천 알고리즘 얘기를 늘어놓은 건, 알고리즘을 상상하는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개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 설계에 사회가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은 다양성 고려 설계(Diversity by Design)라는 법률적 논의로 벌써 넘어가는 중이다.

한국 뉴스 생태계가 당연한 큰 문제는 뉴스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의 이면에는 언론사의 당파성이 존재한다. 당파적 뉴스들은 뉴스 소비자들의 집단 동조효과를 부추김으로써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낸다. 하지만 플랫폼들의 디지털 필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저 외곽에선 알고리즘 공개를 외치지만 좀체 먹혀들지 않는다. 대안성의 부재는 이렇게 방치와 외면을 낳을 뿐이다.

올해도 추천 알고리즘의 폐해를 둘러싼 수많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질 것이고 서로 부딪힐 것이다. 총선은 그 공방의 정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당연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성이 풍성한 알고리즘의 사회적 제안을 도외시하긴 어렵게 됐다. 알고리즘 공개라는 비판적 요구가 얼마나 허망하게 외면받았는지 경험해봤다면 절감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품지 못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고 견인할지 알고리즘에 대한 전향적 접근으로 해결해볼 시점에 도착했다.



# 물처럼, 강물처럼 하나 되어 흘러가는 시간

'각진 마음'을 '둥근 마음'으로, '모난 마음'을 '원만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길고도 먼 시 쓰기의 도정 위에서 김종해(1941~) 시인은 이달에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작품 <강물이 되어 흐르라 하네>와 같은 무르익은 시를 내놓았습니다.

물은 인류사 속에서 아주 다양하면서도 심오한 상징성을 부여받은 특수한 물질이자 존재입니다. 물은 실제로는 뜻 없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질료이자 형상에 불과하지만, 인간들은 이 물을 향하여 수많은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생활을 수준 높게 구축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존재와 세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사람들은 지수화풍(地水火風: 흙, 물, 불, 바람)을 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물은 생명 창조와 원천으로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별을 생명의 세계로 생성시키고 진화시킨 놀라운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물 앞에서 남다른 찬탄과 감동이 섞인 경외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찬탄과 감동을 담은 경외감이 마침내 수준 높은 형이상성을 부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물은 아연 오래된 경전이나 신뢰할 만한 고전처럼 지혜의 텍스트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물 앞에서 인간들은 무수한 지혜의 소리를 듣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2,500여 년 전 노자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낱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김종해 시인은 물 중의 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강물' 앞에서 이런 물의 지혜담을 유달리 귀가 크거나 눈이 밝은 사람처럼 아주 깊고도 넓게 청취합니다. 그가 청취한 물과 강물의 지혜담은 '각진 마음'을 '둥근 마음'으로, '모난 마음'을 '원만한 마음'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그의 시적 소망처럼, 삶의 날카롭고 거칠며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고 또 초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강물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 안고 함께 흐르는 크나큰 포용의 존재입니다. 또한 강물은 서로서로 어깨를 견고 바다로 동행할 줄 아는 품격과 멋스러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물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부동켜안은 채 도반이 되어 대모(太母)의 바다로 흘러가는 진실의 동행자입니다. 또한 이런 강물은 제 뜻을 낮추어 하심(下心)의 길을 원만하게 열어갈 줄 아는 존재입니다.

김종해 시인은 이와 같은 강물의 지혜담을 청취하고 발견하면서 인간인 우리들의 세상도 달리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한없이 어긋나

고 대립하며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 세상도 그 심층을 보면 제 뜻 낮추어 물이 되어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은 참마음이 스며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에게서 전해들은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서로 간의 각진 마음을 내려놓고 물처럼 살라 한다고, 강물처럼 흘러가라 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의 하나 됨! 강물의 흘러감! 이 둘은 물이 지닌 일심과 강물이 지닌 동행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물은 지구별의 어느 곳 남김없이 싹뚫처럼 퍼져 생명의 물길을 열어가는 가운데 지구별을 살리며 연결합니다.

또한 강물은 지구별의 중심을 잡으며 동맥처럼 근간을 형성하는 가운데 물길 따라 인간과 생명이 모여들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바라보는 일은 평화롭고 싱그럽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일은 특별히 고요하고 충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메마를 때 물을 찾고 강물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물의 묘용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물처럼, 강물처럼 하나 되어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물이 되어 흐르라 하네

김종해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함께 흐르는 것은 물밖에 더 있으랴  
넉넉한 품으로  
물과 물이 서로 어깨를 견고  
함께 바다로 동행하는  
저 표표한 품세를 보아라  
까마득한 수직 절벽 폭포든  
험산 준령 골짜기  
광야의 지평 어디서든  
깊고 얇고 구석지고 외진 어느 곳이든  
따지지 않고  
서로서로 부동켜안고 바다로 가는  
저 사랑의 역만 년 도반(道伴)을 보아라  
사람 살아가는 세상  
제 뜻 낮추어 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  
서로간의 각진 마음 내리고  
물처럼 살아가라 하네  
강물이 되어 흐르라 하네

- <늦저녁의 버스킹>(문학세계사, 2019)에서



●  
단어의 중력  
글 황경신(작가)

# 어메칸



부조리의 인간은 이렇게 불처럼 뜨거우면서도  
 얼어붙은 듯 싸늘하고, 투명하고 한정된 세계,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주어진 세계, 그 한계 밖으로 넘어서면  
 붕괴와 허무뿐인 하나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그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그 세계에서 힘을, 희망의 거부를,  
 그리고 위안 없는 한 삶의 고집스러운  
 증언을 이끌어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알베르 카뮈-

넓은 등산화에 늘어붙은 진흙을 털어내며, 너는 숨을 고른다. 산장은  
 눈앞에 있다. 하나의 봉우리를 넘으면 허락되는 잠깐의 휴식. 하지만  
 너는 선볼리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달콤함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사  
 치는 네 인생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서, 너는 고여 있던 낡은 공기의 냄새를 마신  
 다. 젊은 날에 네가 묵었던 산장은 대체로 불편했다. 땅속에 반쯤 파  
 묻혀 있어 햇볕이 들지 않는 곳도 있었고, 돌아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도 있었고, 우렁찬 폭포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산장들은 모두 달랐다. 창을 열면 매년 다른 풍경이었고 귀  
 를 기울이면 매년 다른 소리가 들렸다. 불안은 있었으나 지루함은 없  
 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네 눈앞에 나타나는 산장들의 모습이 닮아  
 가기 시작했다.

‘딱히 불만이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지.’

중얼거리며 너는 배낭을 내려놓는다. 한때 그 배낭은 온갖 물건들  
 로 가득했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웠다. 피아노 악보와 기타를  
 짊어지고 다닌 때도 있었고, 플라멩코에 빠져 치렁치렁한 스커트와  
 빨간 구두, 머리에 꽂는 코르사주를 커다란 상자에 넣어 들고 다닌  
 때도 있었고, 독어 수업교재로 배낭을 꽉 채운 때도 있었다. 이제 너  
 의 짐은 단출하다. 물과 불, 남루하지만 편안한 옷가지, 그리고 몇 권  
 의 책과 필기도구만으로도 삶이 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물을 끓이는 사이, 어둠이 산장 곳곳에 스며든다. 램프를 켜  
 고 너는 생각에 잠긴다. 산을 함께 오르고 산장에 같이 머물던 친절  
 한 사람들과 다정한 연인이 네게도 있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람  
 처럼 사라진 얼굴들,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시간이 불  
 빛 속에 일렁인다. 만남과 이별 위로 세월이 겹겹이 쌓여 풍경은 고

정되었다.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입을 열지도 않고 눈을 깜박이지  
 도 않는 사람들. 책 속의 등장인물들처럼 현실감이 없고, 낯설지만 친  
 숙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 과거에서 불쑥 튀어나와 말을 걸기도 하는  
 존재들이다.

때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대신, 너는 램프에 의지하여 책을 읽는  
 다. 불빛이 벽 위로 어렴풋한 그림자를 만든다. 네가 고개를 들자, 그  
 가 입을 연다.

“드디어 카뮈를 읽을 마음이 들었나 보네.”

“위안이 필요하거든.”

힘겹게 바위를 밀어 산의 정상에 올려놓아도,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  
 진다. 그 험된 노력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시시포스의 삶을 카뮈는  
 존재의 실존적 비극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삶의 부조리를 인지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주어진 세계 속에  
 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건가?”

그의 말에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응시한다.

“결심까지는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  
 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잖지.”

신들이 내린 그 벌이 과연 타당한가. 일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  
 고, 여행자들을 죽였고, 죽음 앞에서도 신들을 기만했던 시시포스에  
 게 부여된 영원한 형벌은 공정한 것인가. 그러한 생각으로 고심한 적  
 도 있었다. 하지만 형벌의 연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첫 숨을  
 뱀은 순간,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것이 삶이었다. 하나의 봉우리  
 를 오르면, 다음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삶이었다. 짊어지고 있  
 는 것이 많으면 힘겹고, 내려놓으면 허전한 것이 삶이었다. 그 짐을 가  
 법게 만들고, 허전함을 견디는 것 외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는 혹은 그의 그림자는 묵묵히 어둠 속으로 물러나고 너는 다시  
 혼자 남겨진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라고 사  
 르트르는 말했다. 탄생이 너의 의지가 아니었듯 죽음도 네가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르느냐 혹은  
 오르지 않느냐, 둘 중 하나이다.

너는 낡은 등산화의 먼지를 털고, 해진 옷가지를 수선하고, 너덜너  
 덜한 책장을 또 한 장 넘긴다. 가진 것도 없고 가능한 것도 없지만, 세  
 월이 남기고 간 추억만큼은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하니, 그에 의지하  
 여 너는 또 오를 것이다.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오르기를 영원히  
 반복할 것이다.

## 내 마음의 활동사진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 진실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도 느껴질 수 있는 사이.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함부로 대하게도 되는 사이. 방금 전까지 짜증을 내며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팔짱을 끼게 되는 사이. 조울증 환자처럼 심한 감정의 파고를 서로에게 시시각각 다 보여주면서도 창피해하지 않는 사이. 엄마와 딸의 관계만큼 이율배반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하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은 가족 영화의 달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 소녀의 이야기다. 배경을 프랑스 파리로 옮겨왔고, 서양 배우들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연기하는데도 가족의 갈등과 화해라는 테마를 풀어내는 그의 솜씨는 변함없이 빛난다. 프랑스의 대배우, '파비안느'(까뜨린느 드뇌브)는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뤼미르'(줄리엣 비노쉬)는 남편 '헝크'(에단 호크)와 딸 '샤를로트'(클레망틴 그르니에)를 대동하고 파리를 방문한다. 엄마의 회고록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사실 뤼미르는 나르시시스트인 엄마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썼는지가 궁금하다. 아니나 다를까 파비안느의 회고록에는 진실도,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늘 바쁜 엄마였으면서 뤼미르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쓰질 않았나, 그녀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매니저 '뤼크'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심지어 지금도 건강한 전남편은 죽은 걸로 되어 있다. 뤼미르는 정원에서 연기 연습을 하는 엄마에게 가서 따진다. “이 책에 진실이라고는 없네요.” 그러나 파비안느는 당당하다. “나는 배우라서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

파비안느와 뤼미르 사이의 갈등과 오해는 대체로 파비안느의 독특한 캐릭터로부터 비롯된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로 성공하고픈 욕망이 컸던 파비안느는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해 왔고, 그만큼 배우로서 자신의 커리어와 지위에 큰 자부심이 있는 인물이다. 타고난 성격과 바쁜 일 때문에 딸에게 애뜻한 속내를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파비안느는 회고록에도 연기하듯 자신이 되고 싶은, 혹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형상화해 놓는다. 그녀가 딸에 대해 써 내려간 것은 ‘진실’은 아닐지언정, ‘진심’에는 근접해 있다. 그러나 뤼미르는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에서 남편이 B급 TV 배우라고 무시하는 엄마가 알미워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과거를 들춘다. 파비안느는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녀도 속으로는 상처가 깊다. 파비안느는 배우가 되는데 실패한 딸의 감정과 아주 작은 버릇 하나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동료 배우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평소 술과 담배를 달고 사는 파비안느가 혼자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바라보는 장면은 그녀의 외로움을 잘 보여준다. 젊은 배우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나 좋은 연기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굳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회고록에 섭섭함을 느낀 매니저가 갑자기 파비안느를 떠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엄마의 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뤼미르는 조금씩 파비안느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엄마는 생각보다 더 많이 늙어 있다. 또한, 타인들을 통해 자신을 향한 엄마의 애정을 느끼게 되자 뤼미르는 그저 딸이기



에, 기름종이처럼 그 감정들을 흡수한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하다. 유명인인 엄마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뤼미르는 이제 자신을 닮은 한 소녀의 엄마가 되어 엄마의 마음으로 파비안느를 바라보고 돌본다. 마지막 부분에서 뤼미르가 파비안느를 감동시키기 위해 딸에게 대사를 주고, 할머니 앞에서 말하게 만드는 장면은 뭉클하고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엄마와 딸들이 모두 해피엔딩을 맞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서툰 표현 때문에 덮어둔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펼쳐 놓을 때 화해의 가능성은 열리기 마련이다. 영화의 후반부, 파비안느와 뤼미르는 서로의 뺨을 대고 끌어안는다. 어떤 사과도 고백도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완벽한 모녀의 투샷이 짙은 감동과 미소를 남긴다.

# 위원회 뉴스 · 위원 동정

## 위원회 뉴스

### 2019년도 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6일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승찬 중재위원(서울제4중재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의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한서대 이용성 교수의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 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KBS 김대영 선거방송기획단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언론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 영남대 법전문 이부하 교수, 위원회 최송민 심의2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 출범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16일 4·15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 출범식을 가졌다.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심의 요구에 따른 시정요구 안건도 처리한다. 선심위는 정당, 선관위, 언론학계, 대한변협, 언론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가톨릭대 행정학과 채원호 교수, 부위원장은 강원도선관위 김영철 전 상임위원이 맡는다.



### 전직 위원장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직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규운, 김두현, 박영식, 권성, 박용상, 양인석 전 위원장이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선 및 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2019년도 위원업무간담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18일 서울중재부를 비롯해 각 중재부 별로 2019년 하반기 위원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업무 현안과 법정업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31일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를 발간했다. <탈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와 팩트체크, 그리고 인격권>을 주제로 공모한 기획논문 3편과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논의를 담은 연구논문 4편이 수록됐다.

###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31일 계간지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153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에서는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 및 언론 보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현 부연구위원의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공표의 개선 방안」 등의 기고가 수록되었다.

###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발간

교육본부 이수종 본부장은 12월 23일 독일의 초상권 법제 현황과 연원을 소개하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를 발간했다. 이 본부장은 저서에서 범죄 피해자 초상 공개, 유명인의 초상권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독일 판례를 소개했다.

### 위원회 사무처 인사(2020. 1. 1. 자)

구분	성명	내용
승진	조준원	조정본부 본부장(1급)
	최영훈	조정본부 접수상담팀장(2급)
	김문성	전북사무소장(2급)
	김성찬	운영본부 총무팀 차장(3급)
	이세라	교육본부 교육팀 차장(3급)
전보	조준원	운영본부 본부장
	정희성	조정본부 본부장
	이미경	감사관
	이홍길	운영본부 총무팀장
	안백수	운영본부 총무팀(국방대 파견예정)
	박혜진	조정본부 접수상담팀 차장
	문윤정	조정본부 조사팀
	한혜연	조정본부 조사2팀
	김승아	조정본부 접수상담팀
	양재규	교육본부 연구팀장
	여종국	교육본부 전문위원
	한병훈	심의실 심의팀
	전우람	심의실 심의2팀
	이재범	대전사무소장

## 위원 동정

### 중재위원 사퇴

일신상의 사유로 12월 6일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일자
경기중재부	오동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2019. 12. 6.

### 이승선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학회장' 선출

이승선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12월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언론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끈다.

### 심미선 위원,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 세미나> 사회

심미선 위원(서울제3중재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2월 12일 방송회관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방송학회와 KBS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해 지역 KBS를 미디어교육의 허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황용석 위원·이승선 위원,

### <인터넷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세미나> 발제

황용석 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과 이승선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12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의원입법 13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황 위원은 "국회가 전반적으로 정치적 대응 의미의 표현물 규제 법안을 많이 내놓았다"는 결과를 밝혔다.

### 이재진 위원·정은령 위원,

###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

이재진 위원(서울제4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과 정은령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12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비보호 영역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 위원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안차수 위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전문가 간담회> 참석

안차수 위원(경남중재부,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12월 12일 창원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안 위원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활용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 고영철 위원, 제58회 제주도 언론·출판 부문 문화상 수상

고영철 위원(제주중재부, 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은 12월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언론·출판 부문 문화상을 수상했다.



## 통영 한산섬의 일출

클·사진 이훈구(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남 통영시 미륵산(해발 461m)에 올라 한산섬 일대를 바라봅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피와 눈물로 한산대첩을 이끈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태양은 힘차게 하늘로 솟구칩니다.  
기동처럼 뻗어가는 저 태양처럼,  
우리네 삶도 사회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